2016년11월17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②	①	⑤	①	①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②	③	③	⑤	③	④	③	③	⑤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실의 도덕적 질서를 부정하고 대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

②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서(恕)를 실천해야 한다.

③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기 위해 양생(養生)의 수련을 해야 한다.

④ 성현이 제정한 예악에서 벗어나 개인적 욕구를 추구해야 한다.

⑤ 내세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기 위해 초월적 존재에 의존해야 한다.

2.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완성이다. 자신의 본성상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인간만이 서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국가를 이루길 원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지 물질적 필요의 충족만은 아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목적이라면 노예나 짐승의 국가도 존재할 수 있다.

① 국가는 구성원의 덕성 함양에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② 국가 안에서만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된다고 본다.

③ 국가와 구성원 간 합의로 정치적 의무가 소멸된다고 본다.

④ 국가는 개인들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명목에 불과하다고 본다.

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훌륭한 삶과 개인의 좋은 삶은 무관하다고 본다.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하늘과 땅이 합하여 만물이 생겨나고 본성과 작위[僞]가 합해져 천하가 다스려진다. 하늘은 만물을 생성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땅은 사람들을 살게 하지만 다스리지 못한다. 성인(聖人)은 성정(性情)을 바로잡아 만물을 분별하고 세상을 다스린다.
> 을: 하늘과 땅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도 자신을 뒤에 세우지만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지만 자기를 보존하게 된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無爲]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① 갑은 하늘[天]을 인간에게 도덕적 성정을 부여하는 실체라고 본다.

② 갑은 효제(孝悌)를 인간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로 본다.

③ 을은 사물에 대한 지식의 축적만으로 도(道)를 체득할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인위적인 예의 실현을 위해 부쟁(不爭)의 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인간의 본성[性]은 서로다르지만 수양을 통해 같아진다고 본다.

4. 사회사상 (가), (나)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가 다수의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이다. 공산주의는 생산물을 취득할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예속시키는 권력을 빼앗고자 한다.
> (나)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이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①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② 계획 경제의 틀 아래 산술적으로 균일한 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의회 중심의 정당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해야 한다.

④ 공공 이익의 증진을 위해 일체의 사적인 소유를 배제해야 한다.

⑤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5. (가)의 한국 사상가 갑, 동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 사람이 잉태되면 하늘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인 영명한 본체를 부여한다. 동물은 억지로 인간이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사람은 자주의 권한[自主之權]도 부여받아, 선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다. 을: 사람과 만물이 생겨나면 이치 또한 부여받는데, 각각 부여받은 이치를 본성[性]으로 삼는다. 기질의 맑고 탁한 차이로 인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생겨난다. 사람은 기질의 차이에 따라 선을 행하기도 하고 불선을 행하기도 한다.
(나)	

① A: 덕을 좋아하는 성향[嗜好]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본성이다.

② A: 예(禮)의 덕은 사양하는 마음을 실천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③ B: 인격을 수양하는 궁극 목적은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④ C: 만물에 부여된 형이상의 본성에도 인의예지가 갖추어져 있다.

⑤ C: 사단(四端)은인간이태어나면서선천적으로지니는선한감정이다.

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6번 공통지문 문제)

> 마음은 이와 기가 합해진 것이다.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隨] 것이니 순선하여 악이 없다. 그러나 이가 발함에 끝까지 드러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흘러서 악이 된다. 또한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乘] 것이니 선하지 않음이 없다. 하지만 기가 발함에 적절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이(理)를 멸(滅)하면 나아가 악이 된다.

〈보 기〉

ㄱ. 측은해 하는 도덕 감정이 이(理)의 작용임을 간과하고 있다.
ㄴ. 칠정 중의 선한 감정을 사단이라고 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ㄷ.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ㄹ. 기에서 비롯된 사욕만 따르면 악해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도덕적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을 의지 규정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 그것을 준수하기에는 너무 나약하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강제로 작용한다. 단지 '의무에 적합한' 행위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 을: 도덕 원리는 그 자체 이외의 어떤 증거도 필요 없이 자명한 것이다. 구체적 상황에서 하나의 행위가 한 관점에서 일견 옳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다른 관점들에서는 그르다면 실제적 의무가 될 수 없다. 특정 상황에서 가장 옳은 행위 수행만이 실제적 의무가 된다.

① 갑: 동정심에 근거한 행위가 의무에 적합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② 갑: 보편화 가능하지 않은 행위의 준칙은 도덕법칙과 일치될 수 없다.

③ 을: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자명한 하나의 도덕 원리는 없다.

④ 을: 의무들이 상충하는 경우 실제적 의무는 직관에 의해 결정된다.

⑤ 갑, 을: 행위의 결과와 유용성보다 도덕적 의무가 우선한다.

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충동과 욕망이 생길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우선 그것이 올바른지 이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신성한 우주에는 질서가 있다. 선한 삶은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에 만족하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다.
> 을: 이성적이고 고상하게 살지 않으면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없다. 또한 쾌락 속에 살지 않고서는 이성적이고 고상하게 살 수 없다.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파악하고 영혼의 동요를 방지하는 명료한 사고만이 쾌락적 삶을 만들어 준다.

〈보 기〉

ㄱ. 갑은 우주의 만물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질서가 있다고 본다.
ㄴ. 갑은 인간이 자연을 초월한 이성의 힘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이성적 사고를 토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 이외에는 어떤 안전 대책도 존재하지 않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 있는 것보다 막강한 권력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공공의 칼에 의해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은 단지 빈말과 허풍에 불과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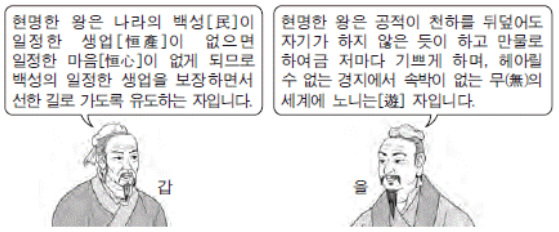
을: 모든 사람이 절대 군주에 복종해야 하는 상태보다 타인의 부당한 의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연 상태가 훨씬 낫다.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사적 재판권을 최고 권력인 입법부에 위임한 시민 사회는 절대 군주제와 양립 불가능하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사람들의 자기 보존 욕구가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된다고 보았으며, ㉡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인간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 자연권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 계약의 목적을 위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에 대해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개인들의 합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0.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은 인의(仁義)에 바탕을 둔 도덕 정치의 실현을 추구한다.
ㄴ. 갑은 민심을 잃은 부덕한 통치자를 교체하는 혁명을 인정한다.
ㄷ. 을은 세속적 차별에서 벗어나 제물(齊物)의 경지를 지향한다.
ㄹ. 갑, 을은 법과 제도가 완비되고 문물이 발달된 사회를 추구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의 쾌락의 총합이다. 이러한 쾌락은 양적으로 계산 가능하다. 어떤 것이 한 개인의 쾌락의 총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그의 이익을 증진한다거나 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공동체의 행복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누리는 풍부한 쾌락이다. 쾌락의 양에 대비해 그 질을 측정하는 원칙은 쾌락을 경험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선호이다.

① 갑: 입법의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들의 행복 총합의 증대이다.
② 갑: 개인의쾌락은측정가능하지만공동체전체의쾌락은측정할수없다.
③ 을: 존엄감을 지닌 인간은 저급한 쾌락보다 고급의 쾌락을 추구한다.
④ 을: 누구의 행복도 증진하지 않는 자기희생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⑤ 갑, 을: 행위의도덕성은선한동기보다좋은결과에의해서 판단된다.

12.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일심(一心)과 두 개의 문[二門] 안에 일체의 불법(佛法)이 포함되어 있다. 진(眞)과 속(俗)은 둘이 아니지만[無二], 하나를 고수하지도 않는다. 둘이 아니므로 곧 일심이다.

을: 돈(頓)과 점(漸) 두 개의 문은 모든 깨달은 자가 걸었던 길이다. 예로부터 그들은 먼저 깨닫고[悟] 뒤에 닦아[修], 그로 인해 깨달음을 얻었다.

〈보 기〉

ㄱ. 갑은 마음과 별개인 현상이 불변의 실체로 존재한다고 본다.
ㄴ. 갑은 일심이 화쟁(和諍)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ㄷ. 을은 깨친 뒤에도 정혜(定慧)를 닦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ㄹ. 갑, 을은 경전의 이해만으로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자연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은 오직 사례에 의해, 적절하고 타당한 실험에 의해 얻을 수 있다. 감각은 실험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험이 자연과 사물을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로서 자연의 질서를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 을: 자연과학에서 중시하는 탐구는 도덕에서도 중시되어야 한다. 도덕은 결과가 옳은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가설로 여겨져야 한다. 실수는 도덕적 죄가 아니라 지성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한 교훈이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가르침이다. 도덕적 삶은 유연하고, 생생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① 갑은 전통과 권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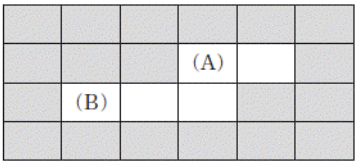
② 갑은 귀납법과 실험이 학문 연구의 주된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이론과 지식이 불변의 목적인 도덕을 위한 도구가 된다고 본다.

④ 을은 문제해결에유용한것으로확인된가설이진리로간주된다고본다.

⑤ 갑, 을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 인류의 성장과 진보가 가능하다고 본다.

14.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태양'은 보이는 것들에게 보임의 힘을 주고 그것들을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좋음[善]'은 인식되는 것들에게 인식됨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한다. ○ 나라 안에 세 부분이 있듯이 모든 개인의 영혼 안에도 세 부분이 있다. 인간이 올바르게 되는 것은 나라가 올바르게 되는 방식과 같다.
(나)	 [가로 열쇠] (A): 일을 해 나갈 때 차례로 거쳐야 하는 순서와 방법 예) 롤스의 '순수 ◯◯적 정의' (B): 두 사람 이상이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도 예) 재산 ◯◯◯ [세로 열쇠] (A): …… 개념

① 이성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발휘되는 기개의 고유한 탁월성이다.

② 영혼의 각 부분이 역할을 다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③ 명예와 승리를 좋아하는 영혼의 부분에서 드러나는 고유의 덕이다.

④ 욕망의 유익과 해악을 헤아리고 계산할 줄 아는 영혼의 탁월성이다.

⑤ 영혼의 건강을 위해 영혼의 세 부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덕이다.

15.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신학의 목적은 영원한 행복이다. 모든 실천적 학문의 목적은 그것에로 질서 지워져 있다. 따라서 신학은 모든 학문보다 우위에 있다. 철학은 계시의 진리를 명료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신의 존재는 증명될 수 있다.
> 을: 신은 오직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인간의 최고선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며, 인간의 최고덕도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정신의 가장 고상한 덕은 자연의 필연성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① 갑은 지적 덕과 도덕적 덕으로 인간의 궁극 목적이 실현된다고 본다.
② 갑은 신의 존재는 은총과 계시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은 신에게 인과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본다.
④ 을은 지성적 직관으로 모든 정서를 제거해야 최고선에 이른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신을 인식함으로써 자연의 필연성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본다.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16.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天心]이다. 서양의 학(學)은 제 몸만을 위하고 하늘을 위하지 않는다. 배우는 자는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守心正氣] 해야 하며,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輔國安民] 해야 한다.
> 을: 이(理)는 선함의 근본이고, 기(氣)는 과불급의 원인이다. 서양은 형기(形氣)를 중시하고 인륜을 저버린다. 유학은 이치를 숭상하고 도리를 중시한다. 올바른 것은 지키고[衛正], 그릇된 것은 배척[斥邪]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신분차별과 오륜(五倫)을 부정하고 평등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ㄴ. 을: 성리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ㄷ. 을: 민족 정체성을 자각하고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ㄹ. 갑, 을: 인간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도덕적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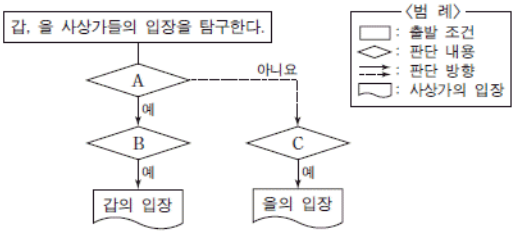
> 갑: 우리는 낯선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다. 우리가 덕의 소유 당사자나 사회에 유용한 덕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시인(是認)의 감정이 발생한다. 이러한 것이 도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공감은 유용한 덕이 지니는 도덕적 특징의 원천이다.
> 을: 우리는 낯선 사람이 길을 물었을 때 짧은 시간일지라도 배려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기초한다. 배려의 관계는 배려의 노력을 수용할 때 완성된다.

① 갑은 사회의 다수에게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유덕하다고 본다.
② 갑은 이성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고 본다.
③ 을은 도덕 행위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배려를친밀한사람들간의관계로한정시키지말아야 한다고본다.
⑤ 갑, 을은도덕적실천에서타인의감정 이해와 교류가중요하다고본다.

18.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정의는 자신에 관한 특수한 지식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되는 원칙에 근거한다. 그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을: 정의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정당한 최초의 취득과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한 분배는 정의롭다.

(나)



〈보 기〉
ㄱ. A: 사회적 직위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ㄴ. B: 약자의 복지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는 부당한가?
ㄷ. B: 사회적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조정될 필요가 있는가?
ㄹ. C: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는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현대서양사상가갑, 을의입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3점]

> 갑: 인간은 정신이며, 정신은 곧 자아이다. 자아는 자기와 맺는 관계이며, 이런 관계는 무한과 유한의 종합이다.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각자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 도약하지 않고서는 이 병을 극복할 수 없다.
> 을: 인간의 실존은 그의 본질에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투쟁, 고통, 죽음, 죄에 대한 책임과 같은 '한계 상황'에서 발견된다. 인간은 그 상황에서 좌절을 통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 자체로 나아갈 때 참된 실존에 도달한다.

① 갑은 합리적 사유를 통해 객관적인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② 갑은 윤리적 삶을 통해 불안과 절망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은 참된 실존을 찾으려면 타자와의 연대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초월자와 단절해야 인간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자유로운결단을통해개인의 참된 자아를 회복해야한다고본다.